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공유공간과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 분석**

An Analysis of Needs for Community Space and Child-care Supporting Services in Urban Dual Low-income Families

Author 임예지 Lim, Yeaji-Ji / 정희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박사과정
이연숙 Lee, Yeun-Sook / 정희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정교수, 이학박사*

Abstract Although the number of dual low-income families continues to increase, working mothers are suffering from difficulties from housework and child rearing due to the economic difficulties and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By understanding the needs about community space and child-care support services, this study will look into planning cooperative child-care environments for dual low-income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Through purposive sampling this research targeted 151 dual income families with an average monthly income level of 1-3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using SPS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view, respondents responded positively to cooperative child-care. Out of the 20 general community spaces, the need for an indoor playground, recreation room, day nursery, separate garbage and reading room ranked high. Overall, 21 child-care community spaces and 11 child-care support services were generally rated highly.

Keywords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공유공간, 육아지원 서비스, 공동육아환경
Urban Dual Low-income Family, Community Space, Child-care Supporting Service, Cooperative Child-care Environmen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 저소득층 가정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주거 및 직업, 열악한 보육환경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맞벌이가정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서울 소재 맞벌이 1,050가구 현황 조사결과¹⁾에 따르면 가구 소득별 맞벌이 비중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21.1%, 2,001~4,000만원인 가구는 29.9%였으며, 이들의 평균 체감 생활수준은 '하'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맞벌이를 통해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리하고자 하지만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이 직면한 현실은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은 취업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가사를 돌보고 자녀양육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관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적인 문제에서 많은 맞벌이가정이 갈등을 겪고 있다.²⁾ 맞벌이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분담은 주거 공간 내에서, 자녀양육의 문제는 주거 공간을 포함한 주 생활환경내에서 구체화되므로 주 생활환경내에서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자녀양육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게다가 현대사회의 자녀양육은 종합적인 발달 차원에서 질 좋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야하므로 가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녀수 감소는 자녀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져 양육비, 교육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는 가정의 부담을 넘어 심각한 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yeunsooklee@yonsei.ac.kr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R&D 도시건축 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 (17AUDP-B068892-05)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 서울연구원, 서울의 맞벌이 부부 현황은?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95호, 2014.7.21
2) 임윤희, 코하우징의 공동육아환경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3

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경우 자녀양육의 주된 방법으로 대다수가 시설 이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비용 등 경제적 문제와 함께 맞벌이가정이 육아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부재 등 육아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일하는 동안 자녀를 방치·준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³⁾ 이들의 열악한 양육환경은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양육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육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이 보다 높은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및 초등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목적인 도시 저소득층의 공동육아를 위한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육아를 위한 공유공간과 서비스 유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공동육아를 위한 공유공간이란 육아를 하는 맞벌이가정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부부가 가사, 육아 및 근로를 모두 병행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란 맞벌이가정의 필요 및 요구를 충족하고 양질의 보육을 위한 지원체제로 보육 및 교육에 관련된 정보 및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유형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하며,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현황 등 제도적 배경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공유공간은 일반적인 공유공간과 육아를 위한 공유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간의 유형은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공유공간 및 공동육아환경에 관한 연구⁴⁾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

성하였다. 육아지원 서비스의 유형은 맞벌이가정 또는 저소득층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자녀양육문제, 육아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⁵⁾를 근간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도출된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에 대한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는 2015년 1/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분위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5년 8월 5일부터 8월 15일 동안 실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도시 저소득층이란 도시 생활을 하면서 불안정한 취업으로 최저 임금선 이하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자인 동시에 정부의 공적 부조의 원조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주변적인 특성을 지닌 계층을 총괄하는 개념이다.⁶⁾ 이들에 관한 연구 가운데 오선영(1993)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고 교육수준은 낮았으며, 월평균 수입이 낮고 단순노동자, 생산기능직 노동 등 비숙련 또는 저급기술을 지니고 있고 불안한 직업구조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물리적인 주거 내·외부 환경조건도 열악한 상태로 대부분 전세나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변 환경에서는 상가나 서비스시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 도서관과 같은 문화공공시설,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 실외놀이터와 같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⁷⁾ 이인희(2009)는 소득1분위는 월 소득의 50% 이상, 소득2,3분위도 소득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불능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하였다.⁸⁾

한편, 맞벌이가정은 결혼한 부부가 동시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말하며 산업사회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생겨난 가족형태를 말한다.⁹⁾ 2016년

의 공동육아환경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3

5) 한주희,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안, 가톨릭대 박사논문, 2005; 최주명, 도시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아주대 석사논문, 2007; 최영란,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부담실태와 지원요구에 관한 연구, 가야대 석사논문, 2011

6) 오선영, 도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위탁실태 및 탁아서비스에 대한 요구 조사, 전남대 석사논문, 1993

7) 박은순, 정미라, 저소득층 아동의 주거환경.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권, 3호, 2007, pp.493-505

8) 이인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9

9) 이재범,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직무만족과 자녀 양육 참여가 가정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박사논문, 2015

3) 김미선,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자녀보육문제와 개선방안, 한양대 석사논문, 2004

4) 이연숙, 신화경, 홍미혜, 거주자 특성별 주민공유공간 요구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8권, 1호, pp.1-12. 1997.; 남궁서영,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 계획, 가톨릭대 석사논문, 2001.; 임윤희, 코하우징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533만 1천 가구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은 유배우 가구의 44.9%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다.¹⁰⁾ 이는 여성인적 자원의 질 향상,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가정의 보편적인 형태가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대부분은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혼 여성이 불가피하게 취업을 하거나 보다 나은 경제적 여유를 위한 형태로 기혼 여성의 취업에 있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¹¹⁾ 그러나 2015년 기준 맞벌이가정의 취업모 가구는 236만 4천 가구로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구 비중이 36.3%, 7~12세가 30.03%순으로¹²⁾ 다수가 영·유아를 가진 여성으로¹³⁾ 이들은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맞벌이를 할 경우 가구 소득은 늘어나지만 그로 인해 양육·가사 등을 포기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은 15%밖에 늘어나지 않아¹⁴⁾ 이는 취업모의 취업 포기 이유가 되며 또 생계형 맞벌이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2.2. 공동육아와 육아환경

공동육아는 말 그대로 이웃,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키워보자는 뜻으로¹⁵⁾ 아동의 성장을 돕는 일을 부모는 물론 육아에 관련된 각종 사회조직과 집단이 육아의 책임자가 되어 아이들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과정에 적극적 참여를 핵심 개념으로 한다.¹⁶⁾

공동육아는 취업모의 증가에 따른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으며¹⁷⁾ 공동체 의식에 기반하여 부모, 지역사회, 교사가 상호 협력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연과 함께 아동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육아는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성을 발달시키고, 자연친화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육아에서는 생활과 공간이 매우 긴밀한 관계성을 지니며, 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⁸⁾

이와 같은 공동육아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물리적 환경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아동간 또는 아동-교사간 상호작용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소집단 상호작용을 하기에 적당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¹⁹⁾ 둘째, 자연친화적 교육을 위한 실외 환경이 필요하다. 햇볕이 잘 들고 작더라도 발을 일굴 수 있고 작은 동물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모래놀이, 물놀이, 흙장난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종합적 생활의 통합을 위한 장소로써 영유아 활동실, 통합활동실 등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아동이 물리적 환경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하다고 느끼도록 만들고 자연스럽게 놀이 환경에 참여하며 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2.3. 공동육아를 위한 공유공간과 서비스

(1) 공동육아를 위한 공유공간

맞벌이가정의 주된 문제는 취업모가 가사 및 자녀육아 문제의 주책임자로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에 상응하여 가사활동 시간이 줄어들어 불구하고 대부분 맡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사회는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기대하고 있어 취업모는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을 더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편, 어머니, 가정부 등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²⁰⁾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도움의 형태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와 같은 맞벌이 가정의 문제는 공유공간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공유공간이란 다양한 목적을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 공동의 공간으로²¹⁾ 다양한 활동공간의 공유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공유공간은 여성이 보다 쉽게 주거생활을 관리하고, 자녀양육문제 등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하여 맞벌이가정의 바쁜 생활을 지원하는 체제일 뿐만 아니라 친밀한 이웃관계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유공간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지역사회의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공동육아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간의 소통공간이자 자녀의 사회성 훈련을 지원하고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유공간의 유형은 <표 1>²²⁾과 같이 기초생활 공유를 위한 공간, 이웃공동체문화 육성을 위한 공

10)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2017

11) Ibid. 주8

12) Ibid. 주9

13) Ibid. 주8

14) 이지선, 한국 맞벌이, 가사노동 시간이 부족하다. LG Business Insight, 1190, 2012.3.28, pp.23-27

15) 유명희,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보육철학과 건축공간의 관계성.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9권, 2호, 2012, pp.41-50

16) 문금희, 공동육아시설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개념과 기준. 한국디자인학회지, 12권, 2호, 1999, pp.31-40

17) 육아정책연구소,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 2013

18) Ibid., 주19. pp.41-50

19) 이혜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환경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3

20) 김경애, 맞벌이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2008

21) 이연숙,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경춘사, 1995

22) Ibid., 주22, p.23

간, 여가행태 수용을 위한 공간, 생활편익을 위한 공간 및 현대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공유공간 유형

유형	공유공간으로 가능한 종류
기초생활 공유를 위한 공간	공동 세탁실, 공동창고, 유모차/자전거 보관소, 우편수취함, 쓰레기 분리 수거대
이웃공동체문화 육성을 위한 공간	다목적행사실, 소규모 작업장, 문화센터, 공동식당, 실내놀이터
여가행태 수용을 위한 공간	실내 스포츠장, 실내정원, 문화교실, 독서실, 다목적행사실
생활편익을 위한 공간	상가, 편의점, 목욕탕/사우나, 세탁소, 자판기
현대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놀이방/탁아시설, 실내놀이터, 청소년문화회관, 경비실, 정보센터, 다목적행사실, 실내정원, 독서실

이 가운데 놀이방/탁아시설, 실내놀이터, 독서실 등은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육아를 위한 공유공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육아를 위한 환경은 아동의 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홈베이스 공간, 학습공간, 놀이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홈베이스 공간으로는 수면 및 휴식공간, 공통 탁아공간, 아동식사 및 식사 준비공간이 있으며, 학습 공간에는 독서, 어학, 음악, 미술을 위한 공간, 정원, 텃밭, 연못 등의 자연 학습공간이 있다. 놀이공간으로는 실외놀이터, 물놀이 공간, 모래/흙 놀이공간, 조작놀이공간이 있다. 특히, 공동육아에 있어 아동 중심의 바깥놀이는 필수적으로²³⁾ 이러한 공간에는 실외 놀이터, 텃밭, 가축 사육장 등의 실외 자연 학습 공간, 아동 물놀이 공간, 아동 수영장, 자전거 길, 모래놀이터 등의 야외 놀이공간, 공터, 잔디밭 등이 포함된다.

(2)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

현대에는 자녀수 감소에 따른 자녀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자녀양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자녀의 양육문제에 있어 방임하지 않고 자녀를 사교육 현장으로 보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로 인한 교육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보다 나은 양육 여건을 위해 취업을 하지만 이는 다시 자녀양육 문제를 야기하여 직장을 포기하고 그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전형적인 미취학 자녀를 둔 저소득층 취업모는 장시간동안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이나 국·공립 시설 이용이 편리하지 않고 야간 보육, 시간제 보육 등 일반적인 보육 시간 외 보육료의 부담이 매우 크다. 그래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적어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가 낮고 부모교육의 경험이 적어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 자녀의 생활 태도나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²⁴⁾ 또한, 단순 노동, 부업 직 등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이 역시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자녀양육 환경은 육아문제를 개인차원에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자녀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방치되어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정의 보육에 대한 니즈를 기반으로 주 생활환경내에서 양육문제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자원들과 연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보육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자녀 돌봄의 공백을 지원하는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 안심 동행, 식사제공,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해당되며, 보육서비스는 형태에 따라 종일, 반일, 시간제, 야간, 방과후 및 주말·휴일 보육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²⁵⁾ 더불어 보다 질이 높은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보육 및 교육시설 보급과 인적자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²⁶⁾과 함께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특별한 요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공유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거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을 야기하는 개별 주호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공유공간을 통해 건물 또는 단지 내 시설, 환경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에게 공유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환경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과밀문제로 가족구성원의 주거 밀집도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빈곤가구의 거주 방수는 2000년 전국 가구당 평균 방수인 3.4개에 밀도는 2.3개로 5인 이상 가족이 2개의 방을 쓰거나 심지어 단칸방에 모든 식구가 거주하는 등²⁷⁾ 주거 내부 환경이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데 있어 부족하기 때문에

23) 이부미, 공동육아 놀이문화의 구성요소 및 교육적 의미 탐색, 생태 유아교육연구, 8권, 2호, 2009, pp.1-33

24) 최주명, 도시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아주대 석사논문, 2007

25) 유혜미, 김문정,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3

26) 김수경, 정유선, 윤정숙,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생활 실태 및 주거 요구 비교, 한국주거학회, 13권, 1호, 2002, pp.1-9

27) Ibid., 주11

공유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맞벌이가정의 증가는 돌봄 기능의 취약화 및 공백을 발생시키며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확충, 아이돌보미와 같은 전통적 형태의 보육서비스로는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공동육아를 위한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에 관련된 연구는 많으나 저소득층 지역사회의 공유공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를 계획하는데 있어 필요한 이들의 요구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2015년 1/1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분위인 가구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으로 한정하였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검토결과 해당 대상자의 연구가 부족하여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공유공간 및 육아 지원서비스 요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비확률표본추출법의 판단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판단표본추출법은 연구자의 사전지식을 토대로 특정 기준에 적합한 사례를 표본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연구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모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²⁸⁾

3.2. 조사내용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 9개 항목, 현 주거 현황 및 만족도 5개 항목, 공동육아환경에 대한 의식 및 요구도 5개 항목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항목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월 소득과 자녀의 수, 성별, 연령 및 양육형태, 맞벌이

이유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현 주거 현황 및 만족도 항목은 맞벌이가정, 양육가정,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만족 및 주거이동에 관한 선행연구를²⁹⁾ 토대로 현 거주 주택 형태와 규모, 주거 형태, 육아를 하는데 있어 현 거주지의 적합여부 및 이유, 육아를 위하여 주거이동의사 및 이유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공동육아환경에 대한 의식 및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응답자에게 본 연구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공동육아환경의 개념을 우선 설명하였다. 항목은 공동육아에 대한 요구 및 이유, 공동육아를 위한 일반 공유공간 및 육아 공유공간, 육아를 위한 서비스/프로그램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공유공간 및 맞벌이가정,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반 공유공간 유형 20개 항목,³⁰⁾ 육아 공유공간 21개 항목 및 육아지원서비스/프로그램 유형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8월 5일부터 8월 15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결과를 회수한 155부 설문지 중 유효한 총 1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설문문항에 대한 평균을 검토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서비스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에 따른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연령과 월평균 소득은 제한된 표본의 수로 인하여 연령은 20~30대와 40~50대로 구분하였고,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하와 301~399만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련의 분석과정은 SPSS Ver.21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9) 강나나, 아파트단지 거주 맞벌이주부의 선호 주거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08.; 이주림, 주거 생활권의 육아환경 평가체계 및 영유아 부모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14.; 김성진, 주거이전 동기와 가족구성원 간 영향력: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원대 박사논문, 2015

30) 일반 공유공간의 경우 이연숙(1995)의 연구에 따르면, 기초생활 공유를 위한 공간, 이웃공동체문화 육성을 위한 공간, 여가행태 수용을 위한 공간, 생활편익을 위한 공간, 현대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공동육아에 초점을 두어 요구도를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단지내외에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공간인 생활편익을 위한 공간 요구도 항목을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28) 안광호, 임병훈, SPSS를 활용한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2004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류	f	%
성별	남성	91	60.3
	여성	60	39.7
	합계	151	100.0
연령	20대	15	9.9
	30대	57	37.8
	40대	60	39.7
	50대 이상	19	12.6
	합계	151	100.0
직업	단순 노동	22	14.6
	생산·기술직	42	27.8
	판매·서비스직	51	33.8
	일반 사무직	30	19.9
	전문직·공무원	6	4.0
합계	151	100.0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4	2.6
	151~200만원	3	2.0
	201~250만원	18	11.9
	251~300만원	29	19.2
	301~399만원	97	64.2
합계	151	100.0	
자녀수	1명	64	42.4
	2명	74	49.0
	3명	5	3.3
	4명	8	5.3
	합계	151	100.0
자녀 성별	남성	135	89.4
	여성	125	82.8
	합계	260	172.2
자녀 연령	1~5세	81	53.6
	6~10세	82	54.3
	11~15세	79	52.3
	16세 이상	18	11.9
	합계	260	172.2
양육형태	가정보육	131	86.8
	대리자 양육	33	21.9
	놀이방	58	38.4
	사설 보육시설	73	48.3
	지역 보육시설	28	25.2
	공동 육아	20	13.1
	합계	353	233.8
맞벌이 이유	생활비와 교육비 마련을 위해	78	51.7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27	17.9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42	27.8
	자아실현을 위해	3	2.0
	사회공헌을 위해	1	0.7
	합계	151	100.0

남성이 60.3%, 여성이 39.7%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40대가 39.7%로 가장 많았고 30대 27.8%, 50대 이상 12.6%, 20대 9.9% 순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33.8%가 판매·서비스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산·기술직이 27.8%로 많았다. 월 평균 소득은 301~399만원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251~300만원이 19.2%로 다음으로 많았다. 자녀의 수는 1명 42.4% 및 2명 49.0%로 다자녀인 3명 3.3% 및 4명 5.3%에 비해 매우 많았다. 자녀의 성별은 남성 89.4%, 여성 82.8%로 비슷하였으며, 연령은 1~5세

53.6%, 6~10세 54.3% 및 11~15세 52.3%로 16세 이상 1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녀의 양육형태는 가정보육이 86.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설 보육시설 48.3%, 놀이방 38.4%, 지역보육시설 25.2%, 대리자 양육 21.9% 및 공동육아 13.1%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이유로는 '생활비와 교육비 마련을 위해'가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27.8%,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17.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는 자녀 1명 또는 2명을 가정보육, 사설보육시설 형태로 양육하고 있었다. 또한, 자아실현이나 사회공헌과 같은 이상적 목적 실현보다 생활과 자녀 교육과 같은 현실적 목적을 가지고 맞벌이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현 주거 현황 및 만족도

응답자의 현 주거 현황으로 <표 3> 47.0%가 단독·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며 21.9%가 아파트에서, 18.5%가 상업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규모는 16~25평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5평이 27.2%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로는 39.7%로 월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증부 월세(반전세) 23.8%, 전세 19.9%, 자가 16.6% 순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3> 현 주거 현황

	분류	f	%
주택 형태	단독/다세대 주택	71	47.0
	아파트	33	21.9
	연립주택	19	12.6
	상업주택	28	18.5
	합계	151	100.0
주택 규모	5~15평	41	27.2
	16~25평	75	49.7
	26~35평	28	18.5
	36~45평	5	3.3
	46평 이상	2	1.3
합계	151	100.0	
주거 형태	자가	25	16.6
	전세	30	19.9
	월세	60	39.7
	보증부 월세(반전세)	36	23.8
	합계	151	100.0

응답자의 현 주거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적합한지에 대해서 <표 4>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3.7%로 가장 많았으며, '열악하다' 27.2%, '좋다' 1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 주거지가 양육을 하는데 있어 적합하지 않다/적합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표 5>와 같다. 적합하지 않은 경우 44.1%의 응답자가 '놀이시설이 부족해서/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서' 및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해서/없어서'가 각각 40.7%, '직장이 떨어져서' 및 '인근 공원 및 녹지 환경이 부족해서/없어서'가 각

각 30.5%로 나타났다. 반면, 적합한 경우 52.1%의 응답자가 ‘자녀의 학교가 가까워서’, 48.9%의 응답자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라고 응답하였다. 34.0%의 응답자가 ‘상가이용이 편리해서’ 34.0%, 30.9%의 응답자가 ‘인근 공원 및 녹지 환경이 쾌적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자녀 학교와의 인접성, 대중교통 및 상가이용의 편리성, 놀이시설, 문화시설, 인근 공원 및 녹지 환경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충분한 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현 주거지의 양육 적합도

분류	f	%
매우 열악하다	17	11.3
열악하다	41	27.2
보통이다	66	43.7
좋다	23	15.2
매우 좋다	4	2.6
합계	151	100.0

<표 5> 현 주거지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적합하다고 한 이유

분류	f	%	
적합하지 않은 이유	동네가 깨끗하지 못해서	14	23.7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해서	17	28.8
	직장이 멀어서	18	30.5
	자녀의 학교가 멀어서	16	27.1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서	24	40.7
	상가 이용이 불편해서	17	28.8
	인근 공원 및 녹지 환경이 부족해서/없어서	18	30.5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해서/없어서	24	40.7
	놀이시설이 부족해서/없어서	26	44.1
	운동시설이 부족해서/없어서	12	20.3
합계	186	315.3	
적합한 이유	직장이 가까워서	19	20.2
	자녀의 학교가 가까워서	49	52.1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46	48.9
	상가 이용이 편리해서	32	34.0
	인근 공원 및 녹지 환경이 쾌적해서	29	30.9
	가까운 친인척이 살고 있어서	10	10.6
	동네 인심이 좋아서	3	3.2
	합계	188	200.0

응답자의 현 주거지로부터 이동할 의사를 살펴보면 <표 6>, ‘많다’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3.2%, ‘매우 많다’ 19.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현주거지로부터 주거이동 의사

분류	f	%
전혀 없다	4	2.6
없다	27	17.9
보통이다	35	23.2
많다	55	36.4
매우 많다	30	19.9
합계	151	100.0

현 주거지에서의 주거이동 의사가 없다/있다고 응답한 이유는 <표 7>과 같다. 주거이동 의사가 없는 경우 응

답자의 43.3%가 ‘이사 갈 형편이 안돼서’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40.0%의 응답자가 ‘자녀의 학교가 가까워서’, 26.7%의 응답자가 ‘직장이 가까워서’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주거이동 의사가 있는 경우 응답자의 37.6%가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해서/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35.0%가 ‘놀이시설이 부족해서/없어서’, 33.3%가 ‘인근 공원 및 녹지 환경이 부족해서/없어서’, 28.2%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취약한 야외 보육환경을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나은 학습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맞벌이가정의 어린 자녀를 위한 안전한 공간의 요구가 높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을 배려한 주거계획 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현 주거지에서 주거이동 의사가 없다/있다고 한 이유

	분류	f	%
주거이동 의사가 없는 경우의 이유	이사갈 형편이 안돼서	13	43.3
	직장이 가까워서	8	26.7
	자녀의 학교가 가까워서	12	40.0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13	43.3
	상가 이용이 편리해서	4	13.3
	인근 공원 및 녹지 환경이 쾌적해서	4	13.3
	합계	54	180.0
주거이동 의사가 있는 경우의 이유	동네가 깨끗하지 못해서	24	20.5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해서	20	17.1
	직장이 멀어서	27	23.1
	자녀의 학교가 멀어서	26	22.2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서	33	28.2
	상가 이용이 불편해서	29	17.1
	인근 공원 및 녹지 환경이 부족해서/없어서	39	33.3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해서/없어서	44	37.6
	놀이시설이 부족해서/없어서	41	35.0
	운동시설이 부족해서/없어서	17	14.5
합계	291	248.7	

4.2. 공동육아를 위한 공유공간 요구

(1) 공동육아를 위한 일반 공유공간

응답자의 공동육아를 위한 일반 공유공간 요구는 다음 <표 8>과 같다.

먼저, 각 유형별 공동육아를 위한 일반 공유공간 요구를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대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이 3.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웃 공동체 문화육성을 위한 공간이 2.82, 여가행태 수용을 위한 공간이 2.74, 기초생활 공유를 위한 공간이 2.73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가행태 수용을 위한 공간과 기초생활 공유를 위한 공간의 요구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보다 다각적인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각 유형별 하위공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현대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중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3.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각 유형별 1순위를 차지한 일반 공유공간을 살펴보면 이웃 공동체 문화 육성을 위한 공간은 공동 정원(3.09), 여가행태 수용을 위한 공간은 공동 휴게실(2.99), 기초생활 공유를 위한 공간은 유모차/자전거 보관소(3.11) 상대적으로 응답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공동육아를 위한 일반 공유공간 요구도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평균	유형별 평균
기초생활 공유를 위한 공간	공동 세탁실	22 (14.6)	48 (31.8)	59 (39.1)	22 (14.6)	2.54
	공동식당/부엌	13 (8.6)	47 (31.1)	62 (41.1)	29 (19.2)	2.71
	공동창고	12 (7.9)	42 (27.8)	76 (50.3)	21 (13.9)	2.70
	방문객 숙소	14 (9.3)	59 (39.1)	56 (37.1)	22 (14.6)	2.57
	유모차/자전거 보관소	5 (3.3)	18 (11.9)	83 (55.0)	45 (29.8)	3.11
이웃공동체 문화육성을 위한 공간	다목적 행사장	12 (7.9)	42 (27.8)	70 (46.4)	27 (17.9)	2.74
	소규모 작업장	16 (10.6)	40 (26.5)	71 (47.0)	24 (15.9)	2.68
	주민 임대용 사무실	15 (9.9)	46 (30.5)	64 (42.4)	26 (17.2)	2.67
	공동정원	3 (2.0)	28 (18.5)	73 (48.3)	47 (31.1)	3.09
	공동텃밭	7 (4.6)	36 (23.8)	67 (44.4)	41 (27.2)	2.94
	공동 휴게실	8 (5.3)	25 (16.6)	79 (52.3)	39 (25.8)	2.99
여가행태 수용을 위한 공간	헬스장	11 (7.3)	37 (24.5)	68 (45.0)	35 (23.2)	2.84
	실내정원	10 (6.6)	34 (22.5)	80 (53.0)	27 (17.9)	2.82
	가축 사육장	24 (15.9)	59 (39.1)	56 (37.1)	12 (7.9)	2.37
	연못/분수	11 (7.3)	42 (27.8)	80 (53.0)	18 (11.9)	2.70
	실내 놀이터	3 (2.0)	23 (15.2)	77 (51.0)	48 (31.8)	3.13
현대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어린이 놀이방 (키즈룸)	5 (3.3)	24 (15.9)	69 (45.7)	53 (35.1)	3.13
	탁아시설	11 (7.3)	27 (17.9)	65 (43.0)	48 (31.8)	2.99
	쓰레기 분리수거대	3 (2.0)	19 (12.6)	67 (44.4)	62 (41.1)	3.25
	독서실	4 (2.6)	23 (15.2)	71 (47.0)	53 (35.1)	3.15

전반적으로 현대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인 실내놀이터, 어린이놀이방, 탁아시설, 쓰레기 분리수거대, 독서실과 공동 정원, 유모차/자전거 보관소, 공동 휴게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의 특성 때문으로 파악되며 이들 특성과 밀접히 관련된 공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2)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 공유공간

응답자의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 공유공간 요구는 다음 <표 9>과 같다.

<표 9>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 공유공간 요구도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평균	유형별 평균
홈베이스 공간	수면, 휴식공간	10 (6.6)	34 (22.5)	61 (40.4)	46 (30.5)	2.95
	공동 탁아공간	5 (3.3)	27 (17.9)	58 (38.4)	61 (40.4)	3.16
	아동식사 및 식사 준비공간	6 (4.0)	23 (15.2)	73 (48.3)	49 (32.5)	3.09
학습 공간	독서공간	6 (4.0)	22 (14.6)	61 (40.4)	62 (41.1)	3.19
	어학공간	5 (3.3)	33 (21.9)	73 (48.3)	40 (26.5)	2.98
	음악실	6 (4.0)	30 (19.9)	65 (43.0)	50 (33.1)	3.05
	미술공간	7 (4.6)	40 (26.5)	66 (43.7)	38 (25.2)	2.89
	정원	9 (6.0)	33 (21.9)	47 (31.1)	62 (41.1)	3.07
	텃밭	10 (6.6)	31 (20.5)	57 (37.7)	53 (35.1)	3.01
놀이 공간	연못	16 (10.6)	36 (23.8)	64 (42.4)	35 (23.2)	2.78
	실외 놀이터	2 (1.3)	24 (15.9)	53 (35.1)	72 (47.7)	3.29
	가축 사육장	19 (12.6)	53 (35.1)	49 (32.5)	30 (19.9)	2.60
	아동 물놀이 공간	4 (2.6)	29 (19.2)	60 (39.7)	58 (38.4)	3.14
	아동 수영장	7 (4.6)	31 (20.5)	58 (38.4)	55 (36.4)	3.07
	모래 놀이터	2 (1.3)	27 (17.9)	67 (44.4)	55 (36.4)	3.16
	자전거 길	7 (4.6)	36 (23.8)	70 (46.4)	38 (25.2)	2.92
	공터	3 (2.0)	31 (20.5)	69 (45.7)	48 (31.8)	3.07
	잔디밭	5 (3.3)	24 (15.9)	72 (47.7)	50 (33.1)	3.11
	실내 놀이공간	8 (5.3)	25 (16.6)	58 (38.4)	60 (39.7)	3.13
현대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실내 체육시설	4 (2.6)	24 (15.9)	67 (44.4)	56 (37.1)	3.16
	장난감 도서관	5 (3.3)	38 (25.2)	66 (43.7)	42 (27.8)	2.96

각 유형별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 공유공간 요구를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홈베이스 공간이 3.07, 놀이 공간이 3.05, 학습 공간이 3.00 순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유형 중 홈베이스 공간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유형간 평균값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육아 공유공간에 응답자들의 요구가 비슷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각 유형별 하위공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홈베이스 공간은 공동 탁아공간(3.16), 놀이 공간은 실외 놀이터(3.29), 학습 공간은 독서공간(3.19) 상대

적으로 응답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놀이 공간 중 실외 놀이터는 전체 공유공간 중에서도 요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응답자의 특성상 대부분이 가정보육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거 환경 내에 놀이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문화예술시설의 부족으로 이주의사가 높았던 까닭으로 파악된다.

4.3.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의 요구를 파악하기에 앞서 공동육아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 보았다<표 10>. ‘보통이다’ 31.8%, ‘원한다’ 31.1%로 비슷한 분포로 높게 나타났으며, ‘원하지 않는다’ 19.2%, ‘매우 원한다’ 13.9%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공동육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공동육아에 대한 선호도

분류	f	%
전혀 원하지 않는다	6	4.0
원하지 않는다	29	19.2
보통이다	48	31.8
원한다	47	31.1
매우 원한다	21	13.9
합계	151	100.0

공동육아를 원하지 않는다/원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표 11>과 같다.

<표 11> 공동육아를 원하지 않는/원하는 이유

분류		f	%
원하지 않는 이유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2	5.7
	보육의 질적 수준이 우려되어서	16	45.7
	학원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교육효과가 크기 때문	13	37.1
	이웃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18	51.4
	공동육아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서	8	22.9
	합계	57	162.9
원하는 이유	집과 가까워서	26	22.6
	아이를 맡아줄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48	41.7
	일하는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서	85	73.9
	비용이 다른 시설/기관에 비해 적게 들어서	53	46.1
	아이 보육뿐 아니라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32	27.8
	합계	244	212.2

원하지 않는 경우 응답자의 51.4%가 ‘이웃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45.7%가 ‘보육의 질적 수준이 우려되어서’, 37.1%가 ‘학원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교육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원하는 경우 응답자의 73.9%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46.1%가 ‘비용이 다른 시설/기관에 비해 적게 들어서’, 41.7%가 ‘아이를 맡아줄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고 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적은 시설을 선호하는 저소득층의 특

성 때문으로 파악된다.

응답자의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는 다음 <표 12>와 같다. 총 11개의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의 요구로, 모든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반일 보육 서비스가 3.22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3.21, 학습지도 서비스가 3.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일반적인 보육 시간 외 보육을 해주는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부족으로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저소득층 특성상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자녀의 학습을 지도해주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12>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도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평균
종일 보육 서비스	5 (3.3)	26 (17.2)	84 (55.6)	36 (23.8)	3.00
반일 보육 서비스	0 (0.0)	18 (11.9)	82 (54.3)	51 (33.8)	3.22
시간제 보육 서비스	0 (0.0)	21 (13.9)	78 (51.7)	52 (34.4)	3.21
야간 보육 서비스	3 (2.0)	36 (23.8)	60 (39.7)	52 (34.4)	3.07
방과후 보육 서비스	6 (4.0)	16 (10.6)	81 (53.6)	48 (31.8)	3.13
주말/휴일 보육 서비스	10 (6.6)	29 (19.2)	78 (51.7)	34 (22.5)	2.90
식사 제공 서비스	2 (1.3)	17 (11.3)	85 (56.3)	47 (31.1)	3.17
학습지도 서비스	0 (0.0)	21 (13.9)	80 (53.0)	50 (33.1)	3.19
장난감대여 서비스	2 (1.3)	23 (15.2)	85 (56.3)	41 (27.2)	3.09
부모상담/교육	1 (0.7)	19 (12.6)	87 (57.6)	44 (29.1)	3.15
문화체험	2 (1.3)	25 (16.6)	72 (47.7)	52 (34.4)	3.15

4.4. 조사대상자별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

본 연구는 응답자의 특성(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에 따른 공유공간과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를 살펴 보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표 13-15>³¹⁾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는 <표 13>과 같다. 평균점을 볼 때 일반 공유공간의 공동창고에서 여성이(2.87) 남성보다(2.59)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육아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에서는 모두 남성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실내 놀이공간(3.29), 식사제공 서비스(3.27), 부모상담/교육(3.25), 잔디밭(3.23), 아동식사

31) <표 13-15>에 작성되지 않은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는 집단별 평균값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및 식사 준비공간(3.21)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식사제공 서비스(3.02), 부모상담/교육(3.00), 장난감 대여 서비스(2.95), 아동식사 및 식사 준비공간(2.92) 및 잔디밭(2.92)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가정 특성상 아동의 식사 준비에 어려움. 저소득층 주거환경 야외환경 부족.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가 낮은 저소득층 가정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성별에 따른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도

구분	구분	M(SD)		t	p
		남 (N=91)	여 (N=60)		
일반 공유공간	공동창고	2.59(0.774)	2.87(0.833)	-2.059	.041*
	아동식사 및 식사 준비공간	3.21(0.753)	2.92(0.829)	2.240	.027*
육아 공유공간	잔디밭	3.23(0.716)	2.92(0.850)	2.447	.016*
	실내 놀이공간	3.29(0.764)	2.88(0.976)	2.832	.005*
	장난감 도서관	3.09(0.755)	2.77(0.871)	2.406	.017*
육아지원 서비스	주말/휴일 보육 서비스	3.01(0.796)	2.73(0.841)	2.051	.042*
	식사제공 서비스	3.27(0.634)	3.02(0.701)	2.347	.020*
	장난감대여 서비스	3.19(0.613)	2.95(0.769)	2.098	.038*
	부모상담/교육	3.25(0.643)	3.00(0.638)	2.376	.019*

주: *p<0.05, **p<0.01

둘째,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는 <표 14>와 같다. 평균점을 볼 때 일반 공유공간의 가족사육장에서 20~30대가 2.51로 40~50대 2.24보다 20~30대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육아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에서는 모두 40~50대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는 <표 15>와 같다. 전반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 응답자의 평균값보다 301~399만원의 소득수준 응답자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니 일반 공유공간의 경우 전반적으로 300만원 이하 소득수준 응답자의 평균값보다 301~399만원 소득수준 응답자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1~399만원 집단 수준에서 일반 공유공간 중 쓰레기 분리수거대의 평균값(3.36)이 가장 높았으며, 독서공간(3.30), 아동 물놀이 공간(3.30) 순으로 나타났다.³²⁾

32) 일반 공유공간 중 쓰레기 분리수거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일반 공유공간 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단독 또는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 한계를 갖는다.

<표 14> 연령에 따른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도

구분	구분	M(SD)		t	p
		20~30대 (N=72)	40~50대 (N=79)		
일반 공유공간	다목적 행사장	2.57(0.836)	2.90(0.826)	-2.433	.016*
	가족 사육장	2.51(0.805)	2.24(0.866)	2.004	.047*
	독서실	3.00(0.822)	3.28(0.697)	-2.251	.026*
	쓰레기 분리수거대	3.11(0.848)	3.37(0.624)	-2.125	.035*
육아 공유공간	공동 탁아공간	2.97(0.855)	3.33(0.780)	-2.682	.008**
	텃밭	2.86(0.983)	3.15(0.818)	-1.982	.049*
	독서공간	2.99(0.880)	3.37(0.737)	-2.893	.004**
	실외놀이터	3.15(0.816)	3.42(0.727)	-2.110	.037*
육아지원 서비스	공터	2.93(0.828)	3.20(0.705)	-2.179	.031*
	종일 보육서비스	2.86(0.775)	3.13(0.686)	-2.233	.027*
	방과후 보육서비스	2.93(0.793)	3.32(0.671)	-3.238	.001**
	식사제공 서비스	3.00(0.692)	3.33(0.614)	-3.096	.002**
	학습지도 서비스	3.07(0.635)	3.30(0.667)	-2.211	.029*

주: *p<0.05, **p<0.01

<표 15> 월평균 소득에 따른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도

구분	구분	M(SD)		t	p
		300만원 이하 (N=54)	301~399만원 (N=97)		
일반 공유공간	소규모 작업장	2.46(1.004)	2.80(0.759)	-2.175	.032*
	헬스장	2.65(0.914)	2.95(0.821)	-2.005	.048*
	연못/분수	2.48(0.863)	2.81(0.697)	-2.428	.017*
	독서실	2.96(0.823)	3.25(0.722)	-2.205	.029*
	어린이 놀이방	2.85(0.833)	3.28(0.732)	-3.263	.001**
	쓰레기 분리수거대	3.04(0.846)	3.36(0.664)	-2.598	.010**
육아 공유공간	연못	2.54(0.985)	2.92(0.862)	-2.377	.019*
	독서공간	2.89(0.945)	3.35(0.708)	-3.398	.001**
	아동물놀이 공간	2.85(0.833)	3.30(0.766)	-3.331	.001**
	잔디밭	2.89(0.945)	3.23(0.654)	-2.335	.022*
	실내 놀이공간	2.89(0.965)	3.26(0.794)	-2.530	.012*
육아지원 서비스	장난감 도서관	2.76(0.845)	3.07(0.781)	-2.292	.023*
	식사제공 서비스	2.98(0.714)	3.28(0.625)	-2.658	.009**

주: *p<0.05, **p<0.01

이 밖에도 자녀의 연령(1~5세, 6~10세, 11~15세)에 따른 일반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의 차이를 분석(ANOVA)하였으나,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 중 방과후 보육 서비스만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자녀 연령에 따른 평균값을 살펴보면, 1~5세 2.91, 6~10세 3.35, 11~15세 3.25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6~10세의 자녀를 둔 부모가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 수준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반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의 일부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일부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연령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반 공유공간 및 육아 공유공간을 더 많이 원함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연령의 경우 학령기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게 방과후 보육 서비스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동육아 환경을 계획할 때, 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요구 차이를 인식한 후 맞춤형 계획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및 초등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요구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서울시 거주 월평균 소득 1~3분위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공동육아를 위한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을 위한 공유공간 및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있어 이들의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들 특성에 맞게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잘 계획된 서비스는 거주지에 대한 편리성과 만족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여성 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줄 것이다.

둘째, 주거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많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계획함으로써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러한 공유공간의 활성화는 보다 합리적이고 수월한 가정생활과 이용이 편리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자녀 양육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이 적고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아이들을 모두 함께 키워보자는 공동육아의 뜻에 따라 부모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문 유희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육아 인프라 확충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계획을 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에 한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보다 체계적인 요구사항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 자료로 삼아 향후 도시 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의 저

소득층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요구 파악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계획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서울연구원, 서울의 맞벌이 부부 현황은?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95호, 2014.7.21
2. 임윤희, 코하우징의 공동육아환경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3
3. 김미선,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자녀보육문제와 개선방안, 한양대 석사논문, 2004
4. 이연숙, 신화경, 홍미혜, 거주자 특성별 주민공유공간 요구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권, 1호, 1997
5. 남궁서영,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 계획, 카톨릭대 석사논문, 2001
6. 한주희,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안, 가톨릭대 박사논문, 2005
7. 최주명, 도시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아주대 석사논문, 2007
8. 최영란,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부담실태와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가야대 석사논문, 2011
9. 안광호, 임병훈, SPSS를 활용한 사회과학조사방법론, 2004
10. 오선영, 도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위탁실태 및 탁아서비스에 대한 요구 조사, 전남대 석사논문, 1993
11. 곽은순, 정미라, 저소득층 아동의 주거환경,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권, 3호, 2007
12. 이인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9
13. 이재범,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직무만족과 자녀 양육 참여가 가정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박사논문, 2015
14.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2017
15.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2017
16. 이지선, 한국 맞벌이, 가사노동 시간이 부족하다. LG Business Insight, 1190, 2012.3.28
17. 유명희,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보육철학과 건축공간의 관계성,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9권, 2호, 2012
18. 문금희, 공동육아시설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개념과 기준. 한국디자인학회지, 12권, 2호, 1999
19. 육아정책연구소,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 2013
20. 이혜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환경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3
21. 김경애, 맞벌이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2008
22. 이연숙,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경춘사, 1995
23. 이부미, 공동육아 놀이문화의 구성요소 및 교육적 의미 탐색, 생태유아교육연구지, 8권, 2호, 2009
24. 유해미, 김문정,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3
25. 김수경, 정유선, 윤정숙,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생활 실태 및 주거요구 비교, 한국주거학회지, 13권, 1호, 2002
26. 안광호, 임병훈, SPSS를 활용한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2004
27. 강나나, 아파트단지 거주 맞벌이주부의 선호 주거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08
28. 이주림, 주거 생활권의 육아환경 평가체계 및 영유아 부모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14
29. 김성진, 주거이전 동기와 가족구성원 간 영향력: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원대 박사논문, 2015

[논문접수 : 2018. 03. 31]

[1차 심사 : 2018. 05. 01]

[게재확정 : 2018. 05. 08]